|  |  |  |
| --- | --- | --- |
| EMB00000e5c3d1e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보도자료 | 01 |
| 2012. 5. 31(목) |
| Press Center 전화 (064) 780-8471 / 팩스 (064) 780-8466 |

[특별세션]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 역할 참가자**

사회 : 신예나 (동시통역사)

토론 : 스티브워즈니악(애플사 공동창업자)

 서종렬(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핵심 사항(Key Points)**

- 애플 창업 스토리, 성공비밀

- 최근 IT 트랜드

- IT기술의 미래, 한국기업의 미래

**○ 발표자, 토론자별 발언내용**

▲ 스마트폰으로 시발된 혁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다. 스티브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는 가장 주목받는 IT그루 중 한명이다. 워즈니악은 1975년 최초의 개인용컴퓨터를 설계해 PC세대를 연 주인공이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과의 공개 대담을 통해 워즈니악에게 애플 창업 과정과 성공비밀, 최근 IT트렌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워즈니악은 스티브잡스와 애플을 창업하고 최초의 PC를 만들 때 이 제품이 만들어 낼 큰 변화를 예상했다. PC를 통해 전기신호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육도하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꿈꿨다. 워즈니악은 애플의 지금과 같은 성공 비결은 바로 개발팀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최고를 꿈꾼 덕분이라고 짚었다. 탁월한 것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몰두했고,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좋은 제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애플도 한동안 수익을 많이 남기지만 우수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애플2처럼 컴퓨터에 컬러를 입히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스티브잡스가 애플로 돌아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세세한 디테일에 신경쓰면서 아이팟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다시 탄생할 수 있었다.

▲ 애플사의 성공 전략은 극명했다. 애플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리테일 스토어, 아이튠 스토어 등 여러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주효했다. 애플은 델, 히타치, 삼성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묶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 했다. 스티브잡스는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티브잡스는 아주 디테일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고치려 했다. 일종의 예술을 하고 있다고 잡스 뿐 아니라 엔지니어 모두 생각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품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 모두가 예술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워즈니악은 그들의 작업이 인문학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줄 뿐 그 뒤의 기술을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그리고 애플의 혁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워즈니악이 말하는 다음 혁신 제품은 바로 더욱 인간과 쉽게 소통하는 기계다. 인간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계에게 말을 하고 원하는 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묻듯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라고 말하면 기계는 자연스럽게 답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기술발전을 통해 인간의 언어, 표정, 감정을 기계가 읽는 단계로 가고 있다. 불과 1년전 아이폰4에 적용된 시리 기술은 앱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워즈니악은 말했다. 전력 소모를 줄여 나가면 더 많은 혁신 제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확산으로 다가온 ‘PC 시대의 종말’에 대하여, 워즈니악은 단지 우리가 PC앞을 떠나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변한 것이라 평가했다. 아직도 PC로 많은 일을 하지만 손안의 작은 기기로 하고 아이패드를 갖고 PC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기가 클라우드로 연결돼 그 안에서는 많은 컴퓨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는 ‘단지 PC로만 일하는 시대가 끝난 것’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 소니, 노키아, RIM 등 한 때 최고였던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으로 몰락한 까닭에 대해, 워즈니악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니의 워크맨이 애플의 제품처럼 혁신적이었지만 소니는 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한때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소니는 덩치가 너무 커져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됐다. 최근 애플도 소니처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워즈니악은 경고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기업이 맞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 애플에 있어 창의성은 뗄수 없는 꼬리표다. 스티브잡스는 “존재하는 것들을 단순히 연결하는 힘”이라고 창의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지만 워즈니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으로부터도 나오고 갑작스런 영감에서도 창의성은 발휘된다. 맥킨토시에 적용한 기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바 있었다고 워즈니악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까지 인류역사에서 의료, 기술, 물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진보를 이룰 때 우연이 많았다. 잘 안되는 것을 고치려 할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

▲ 워즈니악은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한다. ‘틀에서 벗어나 발상하라(Think out of the box)’라고 흔히 말하지만 처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은 선구자가 한 것을 보고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드려면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창의력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 기업이 창의적이 되는 과정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CEO는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를 위해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한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CEO의 역할이다. 워즈니악은 PC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고 스티브잡스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애플이 잘 될 수 있었다. 많은 CEO들이 주가와 수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만들어 내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CEO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이용해보며 퀄리티를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때로는 기업이 과감한 행동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 워즈니악은 창의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수익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창의적인 사람들을 모아 작은 부서를 만들라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실행하는 사람과 묶어서 팀을 만들어야 한다. 즉 창의 센터를 만들어 일상적인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도록 탐험하게 해야 한다. 특별한 과제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과제가 있으면 생각할 여유를 읽기 때문이다.

▲ 한편, 워즈니악은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까다롭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를 파괴하고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복제하는 화이트 헤커가 있다. 제품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유튜브의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농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할 때 이것이 불법 복제인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워즈니악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메일로 URL을 전달하고 다운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확산이 때로는 (마케팅을 위한) 비용이 절감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또한 IT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소유하는 빅브라더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시민들의 모든 전화 내용, 메일이 모두 저장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이런 정보 저장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게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워즈니악은 의아해 했다.

▲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해 각 기업이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특허 내용이 다르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기반이 애플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워즈니악은 보고 있다. 애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훌륭한 제품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혁신적인 기술 세계에서는 (이런 특허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허 분쟁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 마지막으로 워즈니악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꾸는 벤처인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 조언을 던졌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시간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학교에서 스킬을 취득하고 논리를 익히고, 기술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애플과 같은 기업을 꿈꿀 수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워즈니악은 개인적으로 수줍음 많고 중학교 때 안 좋은 기억이 많았다.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 끼지 못하는 외톨이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아이도 없었고 자신이 이야기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까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성적이었지만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고 집에서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고 PC를 설계하며 재미를 찾았다. 혼자 있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 워즈니악은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남들을 이길 필요도 없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